

‘2015 수지 FCI 국제 도그쇼’

JUDGE'S EYE

진행 : KKF 국제팀 김현정 과장

행사 다음 날, 한국애견연맹 국제팀 김현정 과장은 잭 아일랜드 심사위원을 호텔 근처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다. 심사위원은 전날의 감흥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인터뷰 내내 아주 즐거워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잭 아일랜드 심사위원의 심사평

어제 하루 종일 심사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는 처음 방문하셨는데 한국의 도그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모든 스케줄이 제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 캐나다 뿐 아니라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심사를 해 왔는데,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제 시간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 9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시 30분이 넘어서야 간신히 도그쇼가 시작되고, 자정이 되어야 도그쇼가 끝나기도 하거든요. 어제의 도그쇼 종료 시간이 시간표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 것에 놀랐어요. 또한 제가 체류하는 동안의 모든 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스케줄북 또한 정말 유용했습니다. 얼마나 심사위원을 배려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험담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정은 커녕 심사하는 견종조차 알려주지 않는 클럽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링 안에서든 밖에서든 모두 젊은 사람들인 것에도 놀랐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심사위원 분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스튜어드나 핸들러 모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젊은 사람들이어서 아주 즐겁게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웃음). 심사위원들끼리 이제 도그쇼는 쇠퇴하고 있지 않나 종종 말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랜 만에 도그쇼가 살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도그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하신 견종에 대해 간단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은 두수를 심사한 토이 그룹은 정말 정말 강력한 그룹이었어요. 특히 비송 프리제의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제가 심사한 견종은 아니지만 포메라니언 또한 FCI에서는 토이 그룹에 분류되지 않지만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하운드 그룹도 퀄리티가 아주 좋았어요. 결국 제가 베스트 인 쇼 3석으로 선정한 아프간 하운드 암컷은 체형 및 외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움직임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KKF 챔피언십 도그쇼에서 베스트 인 쇼 심사를 맡으셨는데, 수상견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최종 베스트 인 쇼견으로 비송 프리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어두운 눈동자는 특히 탁월했으며, 비송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견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마음 속에 이상적인 비송으로 그리고 있었던 비송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지요. 2석인 진도견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난 견종입니다. 체구, 건강함, 기질 모두가 완벽한 수컷의 전형이었어요. 저처럼 이 견종이 처음인 사람이라도 이 견을 보는 순간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견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베스트 인 쇼 선정견들은 모두 제 트렁크에 넣어서 데려가고 싶어요.(웃음)

트렁크가 아주 커야 되겠는데요.(웃음) 그 외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예의바른 핸들러들 덕분에 편안하게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링에서 핸들러 초보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연맹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지요. 단, 아직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인지 심사위원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초보자들은 링 밖에서 심사위원이 무엇을 집중해서 보는지 잘 관찰해야 해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링 안에서도 더욱 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항상 이상적인 견의 이미지를 마음 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견과 출진견을 비교하면서 심사해야 합니다. 그 이상견에 가까운 견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잭 아일랜드(캐나다)
Mr. Jack Ireland

AKC/CKC 전견종 심사위원

잭 아일랜드 심사위원은 1969년부터 "Pinepath"라는 견사호 아래 세인트 버나드, 페키니즈, 그리핀 브뤼셀, 복서 등을 브리딩하여 170여 마리가 넘는 캐나다, 미국 챔피언을 배출하였다.

2001년 캐나다 전견종 심사위원으로 승인 받은 이후 캐나다 및 미국 전역에서 활발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나라에서 심사한 경력을 자랑한다. 또한 캐나다 및 미국의 심사위원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쓰토무 사토 심사위원의 심사평

JKC 도쿄 블록의 회장이기도 한 쓰토무 사토 심사위원은 4월 초에 도쿄의 벚꽃을 만끽하다 한국에 와서 만개한 벚꽃을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2012년 심사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소감이 어떠하신가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벚꽃이 만발할 때 방문하게 되어 더욱 좋습니다. 현재 일본은 거의 매주 도그쇼가 개최되고 있는데, 사실 본부전만 출진이 늘고 있을 뿐 다른 도그쇼는 출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출진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데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조금 추워지기는 했으나 쇼가 개최되는 내내 날씨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아 딱 좋았습니다.

심사하신 견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견종이 있으신가요?

일본은 닥스훈트가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9그룹 토이 견종은 인기가 많은 만큼 퀄리티도 아주 좋았습니다. 비송 프리제가 가장 인상에 남으며, 토이 푸들 중에서 블랙 푸들이 다른 푸들에 비해 퀄리티가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출진자 및 한국애견연맹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은 없나요?

정말 좋은 퀄리티의 견이었는데 개의 청결상태 때문에 좋은 상력을 주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도그쇼에 출진할 때에는 무엇보다 개의 청결상태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애견연맹의 도그쇼 운영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단, 카페트에서 색소가 묻어나는 바람에 특히 말티즈 심사할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까지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견종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토이 견종은 목의 길이라든지 얼굴의 균형 및 형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불독은 다리가 휘어져 있지 않은지 특히 주의 깊게 심사합니다.

- 끝 -

